

5. 이상적 결혼연령은 미혼여성군은 25세(71.7%), 기혼여성군은 24세(47.2%)로 나타났으며 이상적 배우자와의 연령차이는 남성이 3~4세(62.3%)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었다.
6. 자녀의 성에 대한 관념은 미혼여성의 66.0%가 동등하다 했고 기혼여성군에서는 55.2%가 아들이 소중하다고 했다.
-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로는 미혼여성군의 경우는 가문계승(69.8%)이 가장 많았고 기혼여성군의 경우는 노후의탁하기 위해서(48.7%)라고 했다.
7. 이상적 자녀수에 대해서는 미혼여성군에서 1남 1녀(41.5%) 아들딸 관계없이 1명(22.6%), 기혼여성군에서 1남 1녀(46.2%), 2남1녀(20.8%)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8. 이상적 출산간격은 미혼여성군에서 3년(54.7%)이었고 기혼여성군에서도 3년(59.4%)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지 못했다. ($P < 0.05$)
9. 피임방법의 채택희망율은 미혼여성군에서 모른다.(45.3%), 남성불임술(15.1%), 루프(20.2%)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지 못했다. ($P > 0.1$).
10. 이상적 가족계획 권장방법으로 미혼여성군은 강연회 및 교육(64.2%), 영화 및 환동기, 가정방문이 공히 15.1%이었고, 기혼여성군은 강연회 및 교육이 45.3%, 영화 및 환동기(32.1%)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11. 두자녀 결혼생활의 반응은 미혼여성군은 불안전하다 47.2%이었고, 기혼여성군은 87.3%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 ($P < 0.01$).
12. 교육받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해서는 미혼군의 90.1%가, 기혼군에서는 75.5%가 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미혼군에서는 25.7%가 의사에게, 기혼군에서는 37.5%가 보건요원에게 교육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들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일부지역 폐결핵환자의 환자역할 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

원주전문대학 학술논총 제10집, pp. 245~275, 1985.

소 애 영

1. 결론

본 연구는 환자역할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폐결핵 환자의 중단탈락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결핵환자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의 이행그룹은 1984년 1월부터 1984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보건소 결핵 관리실에 등록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15세 이상의 환자 80명이며 비이행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3개월 이상 수약하러 오지 않아 치료가 중단된 15세 이상의 환자 32명이었다.

연구도구는 건강 통제위 성격 측정 도구와 건강에 대한 신념 및 지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84년 11월 5일부터 1984년 11월 29일까지였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통한 면접으로 이루어졌다.

통계분석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X^2 -Tes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역할행위와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환자역할행위 이행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은 가족 검진 여부, 종교, 월수입이었다.

2) 가설검증

① 제1가설인 「환자역할행위 이행그룹은 비이행그룹보다 통제위 성격이 내적일 것이다」는 ($t = -6.45, p < .001$)로 채택될 충분한 근거를 가졌다.

② 제2가설인 「환자역할행위 이행그룹은 비이행그룹보다 폐결핵에 대해 인지한 민감성이 높을 것이다」는 ($t = 1.26, p > .05$)로 채택될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했다.

③ 제3가설인 「환자역할행위 이행그룹은 비이행그룹보다 폐결핵에 대해 인지한 심각성이 높을 것이다」는 ($t = 1.62, p > .05$)로 채택될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했다.

④ 제4가설인 「환자역할행위 이행그룹은 비이행그룹보다 폐결핵의 치료지시에 대해 인지한 장애성이 낮을 것이다」는 ($t = -5.17, p < .001$)로 채택될 충분한 근거를 가졌다.

⑤ 제5가설인 「환자역할행위 이행그룹은 비이행그룹보다 폐결핵의 치료지시에 대해 인지한 이익성이 높을 것이다」는 ($t = 1.77, p > .05$)로 채택될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했다.

⑥ 제6가설인 「환자역할행위 이행그룹은 비이행그룹보다 폐결핵에 대한 지식이 많을 것이다」는 ($T = 2.42, p < .05$)로 채택될 충분한 근거를 가졌다.

⑦ 제7가설인 「폐결핵 환자의 통제위 성격이 내적일수록 폐결핵에 대해 인지한 민감성이 높을 것이다」는 ($r = -0.26, p < .05$)로 채택될 충분한 근거를 가졌다.

⑧ 제8가설인 「폐결핵 환자의 통제위 성격이 내적일수록 폐결핵에 대해 인지한 심각성이 높을 것이다」는 ($r = -0.08, p > .05$)로 채택될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했다.

⑨ 제9가설인 「폐결핵 환자의 통제위 성격이 내적일수록 폐결핵의 치료지시에 대해 인지한 장애성이 낮을 것이다」는 ($r = -0.25, p < .001$)로 채택될 충분한 근거를 가졌다.

⑩ 제11가설인 「폐결핵 환자의 통제위 성격이 내적일수록 폐결핵의 치료지시에 대

해 인지한 이익성이 높을 것이다」는 ($r = -0.37$, $p < .001$)로 채택될 충분한 근거를 가졌다.

⑪ 제11가설인 「폐결핵 환자의 통제위 성격이 내적일수록 폐결핵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을 것이다」는 ($r = -0.43$, $p < .001$)로 채택될 충분한 근거를 가졌다.

3) 제변수간의 상관성

① 성격과 정상관계가 있는 변수는 장애성이며 역상관계가 있는 변수는 민감성, 이익성, 지식으로 나타났다.

② 민감성과 정상관계가 있는 변수는 심각성, 장애성, 이익성, 지식으로 나타났다.

③ 심각성과 정상관계가 있는 변수는 장애성, 지식으로 나타났다.

④ 장애성과 역상관계가 있는 변수는 이익성으로 나타났다.

⑤ 이익성과 정상관계가 있는 변수는 지식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환자역할행위 이행과 관계가 있는 변수는 성격, 장애성, 지식임을 알 수 있었으며 성격은 교육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므로 환자교육을 통해 환자역할행위를 보다 잘 할 수 있는 내적 통제위 성향을 갖게 하며 질병에 대한 지식정도를 높여줌으로써 지식과 관계있는 변수 즉 질병에 대한 민감성과 심각성을 높임으로써 환자역할행위 이행 정도도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폐결핵 환자의 중단탈락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① 결핵은 만성질환이므로 환경적, 구조적 변수들이 선행 변수로서 건강 신념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선행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② 본 조사가 단일 지역의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으므로 결핵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강신념 및 성격에 관한 도구 개발을 위해 결핵 환자와 조사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③ 건강신념 모델의 중재변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